

LS 증권 주간 Global ESG News

LS 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주간 ESG 뉴스 2024.08.23~2024.08.30

구분	시장 동향
Ener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생산 전력 중 무탄소 전력원 비중 약 40% 차지 (2024.08.27, WSJ) BNEF 보고서에 따르면, '23년 생산된 전력 중 약 40%가 풍력, 태양광, 원자력 등 무탄소 전력원에서 발전된 것으로 집계 됨.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전체 에너지 증가분의 90% 이상을 차지한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청정에너지 중사 인력 +4.2%YoY 증가 (2024.08.28, Utility Dive) 미국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작년 청정에너지 업계 관련 중사 인력은 +4.2%YoY 증가하며 '22년(+3.8%YoY) 대비 확대. 특히, 전력발전 인력 증가율이 +4%YoY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는 미국 전체 일자리 증가율의 2배 수준
Gover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정부, 탄소 감축 산업에 €3.3B 규모 자금 투자 (2024.08.23, Euronews) 독일 정부가 탄소포집 프로젝트 등 탄소 감축을 위한 산업 분야에 €3.3B 규모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 발표. 관련 프로젝트는 중견기업에 초점 맞춰 지원될 예정이며, 이러한 투자 행보는 '45년까지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의 일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정부, 석유 및 가스 탐사 금지 법안 연내 폐지할 것 (2024.08.27, 로이터) 뉴질랜드 정부가 '18년부터 개시된 석유 및 가스 탐사 금지 법안과 LNG 수입 규제를 연내에 철폐할 계획. 그간 천연가스 수입 감소로 인해 전력 발전 시 석탄과 디젤 사용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부족 우려가 초래된 바 있음
Corpo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손모빌, 기후변화 노력에도 석유 수요 지속 전망 (2024.08.26, 블룸버그) 엑손모빌이 '50년에도 석유 수요가 현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 전망. 이어, 높은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신규 석유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 일전에 IEA는 파리기후협약을 위해 석유수요가 75% 가량 감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고, 블록 재료로 재생 플라스틱 도입할 예정 (2024.08.29, 로이터) 덴마크 장난감 업체 LEGO Group은 2030년까지 전 제품군에 걸쳐 지속 가능한 소재(재활용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를 사용할 계획. 다만 CEO는 해당 방안이 레고 블록 생산 비용을 상당히 늘리는 요인임을 지적
Fu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르웨이 NBIM, CIP 재생 에너지 펀드에 €900M 투자 단행 (2024.08.26, 로이터) 노르웨이 연기금 NBIM이 CIP 사의 재생 에너지 펀드 CIP V에 €900M 규모 투자를 결정. 해당 펀드는 해상 및 육상 풍력, 태양광 발전소, 전력망 및 배전, 저장 등에 집중할 계획. CIP 측은 CIV 펀드에 대한 모금액이 €12B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이는 지난해 6월 발표된 €5.6B 모금에 이은 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주요 연기금, LDI 매니저들의 기후 위험 고려 부족한 실정 (2024.08.28, PensionsAge) LCP 컨설턴트 분석에 따르면, 영국 주요 연기금의 부채연계투자(LDI)에 있어 기후 위험에 대한 고려가 아직 부족함. 기후 정책 참여와 관련된 전략 및 거버넌스 프레임이 초기 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 대중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는 매니저들이 자신들의 ESG 투자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NYSCRF, 포트폴리오 내 5개 기업과 기후협정 체결 (2024.08.28, NYSCRF) 미국 연기금 NYSCRF 보고에 따르면 올해 포트폴리오 내 5개 기업과 기후협정을 체결. 해당 기업은 Southwest Airline, Cleveland-Cliffs, WEC Energy, McDonald, Realty Income. 함께 주목된 행보로는 MSCI World ex-USA Climate Change Index에 \$2B 투입, 제 4회 연례 기후행동 보고서 발간 등이 있음

자료: 언론보도, LS 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투자전략팀).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